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11)

주제: 역사화해(歷史和解)와 신사학(新史學)

중국문화대학교 111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11회 강연에서는 와세다대학 사회과학종합학술원 유걸(劉傑) 교수를 초청하여 「역사 화해(歷史和解)와 신사학(新史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유 교수는 먼저 「화해 실현」은 동아시아에서 시급히 완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동아시아에는 복잡한 관계가 많고, 과거 전쟁과 식민 지배가 가져온 부정적인 유산은 동아시아에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불안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불안 요인은 확대되고 있다. 유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 요소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였다. 먼저 동아시아 화해 과정에 대한 인식, 즉 「일본·중화민국」, 「일본·중화인민공화국」, 「대만 해협 양안」 세 가지의 화해 과정을 통해 신사학(新史學)의 수립 가능성을 설명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를 촉진시키며, 진정한 역사적 화해를 이루기를 제안하였다.

일본·중화민국의 화해 과정

1945년 8월 15일 장개석(蔣介石) 총통은 항일 전쟁 승리의 연설에서 동포들에게 「불념구악(不念舊惡 / 남의 잘못이나 개인적인 원한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다)」, 「여인위선(與人爲善 / 남에게 좋은 일을 하다)」이라고 하였으며, 중화민국은 「일본의 무력을 남용하는 군벌만을 적으로 여기고, 일본 국민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다. 유 교수는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화해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1952년 4월 28일 중화민국과 일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체결 조약에서 양국은 전쟁 상태를 종결시킬 것을 선포하였으며, 동시에 중화민국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하였음을 분명히 명기하였고, 일본 측도 중화민국이 강대국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표명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중화민국은 전쟁 후 일본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우화적인 정책을 택하여 중·일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2년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포기하였다. 이후 대만은 일본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일본과의 화해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양국 간의 화해를 심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45년 성립된 중·일(대·일) 화해가 매우 안정적임을 증명하며, 동아시아의 화해를 이해하는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중화인민공화국의 화해 과정

1972년 9월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중국을 방문하여 일본과의 공동성명에 서명하여, 양국의 비정상적인 상태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화해의 시대적 배경은 한편으로 국제 정세에 전환으로 인한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내 정책을 수정하고 경제화, 현대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화해 서명은 전쟁이 끝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출발점은 매우 전략적이고, 불안정한 화해였다.

1982년 교과서 기술 문제,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曾根康弘)의 신사 참배 문제로 양국 간 화해에 균열이 생겼다. 당시 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양국의 대립을 초래하는 것을 원치 않아 간신히 화해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 집권 6년(2001-2006년) 동안 양국의 국가 원수(元首)가 교류하지 않은 것은 양국 간의 화해가 정체되었음을 보여준다.

200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국에 대한 깊은 반성을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듬해 원자바오(溫家寶)도 전쟁 후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음을 분명히 가리켰다. 교과서 등의 사건 이후 양국의 화해는 한층 풀리게 되었다.

대만 해협 양안의 화해 과정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1979년 1월 중국은 대내외 정책을 수정하였고, 특히 대만 정책에서는 ‘대만 해방’에서 ‘평화 통일’, ‘일국양제’로 바꾸는 것을 표명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만 상인들이 중국에 건너와 발전하면서 양안에는 인적 교류의 왕래가 시작되었다. 1987년 11월 대만은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만 국민들의 중국 친척 방문을 개방하였다. 1990년 10월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은 국가통일위원회를 설립하여 「민주, 자유, 균부(均富)」 원칙에 따라 국가통일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1993년에는 구왕회담(辜汪會談)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끝내고 개혁개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양안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중국은 현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만의 경제 협력에 힘입어 대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화해의 길은 「같은 중국인」이라는 국민 감정을 내포하는 것 외에도, 중국 정책 전환이 양안 화해 과정을 촉진시켰다.

신사학(新史學)의 가능성

올해는 중·일 국교 정상화 50년, 대만과 일본의 단교 5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50년을 돌이켜 보면 대만과 일본의 화해는 화해의 시기, 방식 그리고 국민 간의 정서와 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반면 중·일 간의 화해는 국민 감정의 측면이 결여된 채 1972년의 전략적 화해에 머물러 있다.

역사적 경험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화해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중국의 역사 인식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즉, 중국이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가 역사적 화해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화해가 전략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화해는 존속(存續)할 수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역사에 대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역사의 공동체」 또는 「지식의 공동체」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에게 「역사적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화해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역사의 공동체는 반드시 국경을 넘으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현재 동아시아가 직면한 역사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였다. 1) 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문제,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서로 대립되는 관점을 초래한다는 것, 3) 역사와 정치를 혼동하는 문제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학자들이 지식 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역사학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역사는 위의 세 가지 쟁점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소위 역사의 대중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방법이 어떤 방해로 받게 될지는 좀 더 연구하여
토론해야 한다.

(網頁連結: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撰稿: 涂玉盞 日文系・副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